

# 완도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 안심 예약제 시행

### 7월 17일부터 8월 23일까지 사전 예약제 해수욕장 이용객 분산 및 밀집도 완화

국내 최초로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해수욕장에 부여하는 '블루 플래그' 국제 인증을 획득한 완도 신지명사십리 해수욕장이 개장 기간 동안 '해수욕장 안심 예약제'를 실시한다.

완도군에 따르면 "피서를 위해 명사십리 해수욕장을 찾는 방문객들을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하고 지역 사회 감염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7월 17일부터 8월 23일까지 37일간 사전 예약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해수욕장 예약제'는 해양수산부에서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해수욕장 이용객 밀집도 완화를 위해 제안한 정책이다.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은 7월 17일부터 사전 예약제가 적용되며 해수욕장을 이용하려면, 사전에 해양수산부 바다여행 누리집(www.seantour.kr)의 예약 시스템을 통해 예약하거나 현장 예약도 가능하다. 방문객들은 지정된 출입구에서 발열 체크를 거쳐야 하며, 이용객들은 생활 속 거리두

기(2m 거리 확보) 등 해수욕장 운영 지침을 따라야 한다.

파라솔 등 시설물 이용자는 개인정보를 기록하도록 하여 확진자 발생 시 신속하게 접촉자들과 연락 가능하다.

이해는 해수욕장 특성상 대규모 이용객이 빈번한 이동으로 통제가 어려운 현장의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신지 명사십리는 해변 길이가 약 3.8km에 이르기 때문에 전 구간에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며, 예약제 운영 구간을 별도로 구분하여 적정 수용 인원 내에서 이용객 수를 분산시킬 계획이다. 샤워장과 공중화장실은 한꺼번에 이용자가 몰리지 않도록 총

량제로 운영하여 생활1속 거리두기를 실천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명사십리 해수욕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7개소의 주차장 실태를 매시간 단위로 점검하여 밀집도가 높은 주차장은 출입을 중지시키고 차량을 다른 주차장으로 유도하여 이용객들을 분산시킨다는 방침이다.

완도군은 해수욕장 예약제 효율적 운영을 위해 열화상 카메라, 관리인력 인건비, 밀집 파라솔 설치 사업 등 사업 계획서를 전남도에 제출하고 사업비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군은 이용자에 대한 설문조사 등을 통해 이번 정책의 문제점과 앞으로 보완해야 할 사항들



을 발굴해 완도 관내 관광지 예약제 문화를 만드는 데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완도군 관계자는 "최초로 운영하는 해수욕장 예약제가 다소 불편하고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해수욕장 이용객들의 밀집도가 높아질 우려가 있는 만

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으며, 국내 최초 블루플래그를 획득한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의 명성을 증명하고, 청정완도의 이미지를 전국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원도=김광수 기자

## 아이도 부모도 즐거운 세상 '장흥군장난감도서관' 개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개관을 미뤄왔던 장흥군장난감도서관이 최근 철저한 방역 시스템을 갖추고 첫 운영을 시작했다.

올해 1월 개관 예정이었던 장흥군장난감도서관은 코로나19 확산

을 막기 위해 문을 닫고 있다가 6월부터 정상 운영하게 됐다.

장흥군장난감도서관에서는 회원 가입만 하면 수시로 장난감 대여가 가능하다.

군민들의 장난감 구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줄 수 있고, 영유아들은 다양한 장난감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 것이다.

부모들은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짧은 장난감을 구입하지 않아도 아이들에게 장난감을 교환해 줄 수 있는 장난감도서관의 개관을 반기고 나섰다.

친환경 재질의 장난감, 수유실, 그늘막 벤치 등 장난감도서관이 갖추고 있는 시설도 만족도가 높다.

군은 철저한 방역과 소독으로

코로나19를 대비하고 있으며, 도서관 이용자들도 마스크 쓰기와 손소독, 생활속거리두기 등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

장흥군장난감도서관은 장흥지역자원봉사센터 2층에 있으며 운영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다.

토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이며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관한다.

군 관계자는 "장난감도서관이 지역의 미래인 유아들에게는 꿈과 희망을, 부모들에게는 지역사회와 함께 아이를 키우는 소통의 공간으로 운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 강진군, 식품 서포터즈에게 맡기세요

식품 홍보 선두주자 역할

강진 식품 서포터즈의 적극적인 홍보 활동이 주목받고 있다. 페이스북,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SNS)를 대상으로 다양한 강진 식품을 알리며 위촉된 지역 경기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로 경기가 위축된 가운데 서포터즈가 올린 다양한 홍보 글을 보고 전국각지에서 연락이와 SNS 홍보 효과를 직접 경험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포터즈는 앞으로 강진 식품인지도 제고 및 판매 식품업체 소비처 확보와 판매 증진에 총력한다.

이승욱 강진군수는 "강진 식품 서포터즈의 역동적인 활동이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며 "서포터즈들의 적극적이고 근면성실한 활동이 효율적인 콘텐츠 홍보 및 경쟁력 있는 식품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현재 강진 식품 서포터즈는 총 40명으로 매일 강진군 대표 농수산식품을 개인 블로그나 SNS에 홍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1월 7일 위촉된 이후로 이번 달까지 강진군 식품을 알리는 주도적 활동을 수행 하고 있다. 1월 황미인차, 황칠차, 떡국떡을 시작으로 매달 강진군의 대표 식품이 홍보됐다.

관내 한 식품업체는 "코로나19

한편, 군은 서포터즈의 활동내역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상반기 우수자에게 군수상장 및 부상을 전달할 예정이다.

강진=김영일 기자

## 해남 가학산→흑석산 자연휴양림 명칭변경 이용객 혼란 줄이고 문헌조사 결과 등 고려

해남 가학산 자연휴양림 명칭이 '흑석산 자연휴양림'으로 변경된다.

자연휴양림이 흑석산 자락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학산 자연휴양림으로 불리고 있어 관광객 등에게 혼란을 주면서 명칭 변경

요구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따라 흑석산이 위치한 계곡면의 문화체육회를 중심으로 지난해부터 주민공청회와 간담회를 수차례 개최하고 지역주민 649명의 서명을 받는 등 본격적인 움직임이 일었다.

해남군은 옛 지도와 문헌들을 검토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명칭변경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관련 조례 개정안을 군의회에 상정, 17일 개정안이 의결됐다.

명칭변경은 7월 1일부터 '흑석산 자연휴양림'으로 변경된다.

흑석산 자연휴양림은 굴참나무, 상수리나무 등 참나무류 자생지를 중심으로 치유의 숲과 유아숲체험원이 조성돼 있으며, 숲속의 집과



휴양관, 캠핑장 등을 운영하고 있다.

기동취재본부



# 함평천지농특산품

친환경 농업의 메카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함평천지 농특산품을 만나보세요.

**함평 로컬푸드 직매장 Tel 061-324-8331**






